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및 지도

김병운*

I. 서론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시청각 설비에 의한 교육방법과 기타 보조 시설에 의한 교육방법, 그리고 80년대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국외로부터 들어온 일부 선진적인 교육방법은 중국의 외국어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아직도 전통적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적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학과를 증설하였고 언어도 종전의 평양어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서울말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교과 과정의 설정, 교재와 참고서적의 개발, 교사들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살

* 중국 경제무역대

해보면 영어권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사람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다.

그럼 본고에서는 경제무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상황을 예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

목표설정: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의 목표는 목표어의 네 가지 기능, 즉 듣고, 쓰고, 말하고, 읽기¹⁾를 능숙히 수행하는 것이라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목표어인 한국어의 다섯 가지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번역(통역)을 능숙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어휘; 재학 4년간의 학습을 통하여 기본어휘 5,500개 내지 6,000개를 장악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 문법; 한국어에 대한 기본문법을 장악하여 일반적인 입말이나 서면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번역;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한글을 한어(漢語)로 시간당 500~600자, 한어(漢語)를 한글로 시간당 200~300자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에서는 일상생활 통역은 물론 일반적인 상담, 무역담판의 통역을 담당하여 오역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읽기; 시간당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소설, 수필, 기행문 등을 12,000자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상 한국어로 구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발음이 똑똑하고 자

1) 박경자 등(1994), 『외국어교수학』, 박영사, 342면.

기의 의사를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과정설정: 한국어와 관련된 교과과정은 기초한국어(1120시간),²⁾ 한국어 문법(80시간), 한국문학작품 독해(640시간), 번역이론과 실천³⁾(160시간), 신문 잡지 독해(80시간), 회화(80시간), 듣기(80시간), 시청각(160시간), 한반도 개관(40시간), 무역실무문 작성(40시간), 경제문장독해(40시간), 글 쓰기(40시간) 등이 있다.

교재: 자체로 편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쓰고, 듣기교재, 시청각교재는 한국에서 구입해 간 동화이야기로부터 교수님들의 특강 녹음, 또는 텔레비전 연속극, 영화, 토론 특집 등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것이라면 모두 이용한다.

Ⅲ. 교수 방법 및 지도

외국어 교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교수방법도 있고 새로운 교수방법도 있는데 어떤 교수방법이나 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대체로 청취발화법(fries method)과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을 접목시킨 방법이라 하겠다.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 시간의 사용 언어

어떤 언어로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2) 괄호 안의 숫자는 수강 받는 시간이다.

3) 여기에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함.

4) 박경자 등, 『언어교수학』에 따르면 교수법은 직접교수법, 독서식 교수법, 구조주의식 교수법, 청취발화법, 인지적 교수법, 전신반응법 등으로 구분한다.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⁵⁾

첫째, 교사는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어(漢語)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이것은 주로 저급학년 즉, 1학기에서 3학기까지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 저급학년들로 놓고 말하면 처음으로 한국어를 접하거나 또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해석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전혀 알아듣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어로 해석하면 학생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의욕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한어(漢語) 두 가지 언어로 진행하되 학생들은 가능한 모국어를 피하여 한국어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언어로 진행하는 방법은 주로 4, 5, 6학기에 적용해 쓰고 있다. 수업시간에 문법이나 어휘해석에 있어서 한국어로 먼저 해석하고 난 뒤에 이해가 부진한 부분을 한어(漢語)로 다시 보충설명을 한다. 한국어를 1년이나 1년 반을 배우고 나면 2천여 개의 어휘와 일반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해도 적잖은 말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듣기와 말하기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어(漢語)를 피하여 한국어로만 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7, 8학기에 적용된다. 이때면 학생들이 이미 3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고 일반적인 말에 대한 이해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국어로 진행하면 해석의 이해에도 이롭고 중국말 사유에서 벗어나 한국어 사유어로 전환하는 데 이롭다.

5) 김병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제2차 한국어 교육 학술토론회 논문집.

2. 발음 교수 지도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발음이다. 특히 한어(漢語)에서는 한국말의 어말받침소리 현상, 장·단음현상이 없기 때문에 발음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발음교수지도는 대체로 자모음 발음 지도, 장·단음 발음지도, 한자음 발음 지도, 억양 발음 지도, 연음 발음 지도, 받침 발음 지도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몇 부분의 발음 지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서 진행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중국학생들의 발음 지도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모음 발음 지도: 중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한국어 교과서들의 구성을 보면 자모음과 간단한 어휘의 발음단계가 약 4주 정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어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어음이론에 의한 정확한 발음은 이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단계 즉, 발음 단계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음성기관을 그려놓고 조음법을 설명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자모음과 함께 진행하는 단어의 발음연습인 것인 만큼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의 신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쉬운 것부터 하면서 실제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한 단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도물, 귀속, 허가증…….⁶⁾

장단음 발음 지도: 한국어에서의 소리의 장단은 말의 뜻을 분화하는 구실을 하는데 대개 모음의 길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배:(倍)와 배(梨), 배(腹), 배(船),

눈:(雪)과 눈(目),

6) 여기서 표기에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도 포함함.

말:(語)과 말(馬), 말(升),
벌:(蜂)과 벌(野),
부자:(富者)와 부자(父子)

그러나 한어(漢語)에서의 동음의 의미의 구별은 4성 즉, 성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mo + 제1성=摸
mo + 제2성=模
mo + 제3성=抹
mo + 제4성=默

그렇기 때문에 중국학생들은 한국말의 소리의 장단 구별을 소리의 고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단이 한어(漢語)의 4성과 구별되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된 연습을 통해 한국어 장단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한자어 발음 지도: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에서 한어(漢語)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한자어의 발음이다. 한국어 속의 한자어는 그 대부분이 한어(漢語)에서 왔기 때문에 발음에서 같거나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안녕----안녕(安寧)⁷⁾
명령----밍링(命令)
자력갱생----즈력갱싱(自力更生)
명태 ---밍타이(明太)
모자----모오즈(帽子)

이상은 중국학생들이 일부 어휘를 잘못 발음한 예들이다. 그 원인을 분

7) 오른쪽의 것은 한어음을 발음한 예들이다.

석해 보면 한국어 받침 “ㅇ”을 잘못 발음해서 생기게 된 것도 있지만 주로는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어(漢語)발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 발음에서는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한어(漢語)에서 오는 영향이다.

기타 발음 교수 지도: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학생들은 한국어의 받침 소리를 잘못 낸다. 예를 들면

땀다(땀) -----따다
 웃다(웃) ---- 우다
 살다 -----사다
 밟다(밟)----- 바다
 등글다 -----두겨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받침 “ㄱ”(기,ㅋ,기사,르기)이 “ㄴ, ㄹ” 앞에서 동화되어 “ㅇ”으로 발음되는 경우고, 다음은 받침 “ㄹ”(ㄹ)과 어중 “ㄹ”(ㄹ)의 발음 구별이다. 예를 들면

먹는다(멍는다)-----머는다
 국물(궁물) ----- 구물
 깎는다(깡는다) ----- 까는다

이상의 현상은 북방계 중국사람에 비해 남방계 중국 사람의 경우 더 심하다. 그것은 북방계 중국사람은 모국어에서 콧소리를 남방계인들보다 잘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받침 “ㅇ” 소리를 잘 못내는 학생의 경우 우선 한어에서의 콧소리 발음부터 잘 내도록 한 후 받침 “ㅇ”음을 내도록 하면 비교적 잘 된다.

그리고 한어(漢語)에도 “ㄹ”음과 “ㄴ”음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얼화”(兒化)⁸⁾음의 영향으로 어중 “ㄴ”음을 “ㄹ”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8) 한어(漢語)에서 모음이 권설음과 결합하여 혀를 마는 모음이 되는데 이를 “얼

예를 들면

사람 ----- 살람
 그리고 ----- 걸리고
 가르다 ----- 갈르다
 자르다 ----- 잘르다

이상은 중국학생들이 <ㅇ·ㄹ>를 <ㄹ·ㄹ>로 잘못 발음한 예이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단어의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하다가 그 다음 음절을 이어서 발음하는 방법, 즉 “사:람, 그리고, 가:르다, 자:르다”로 연습을 반복하면 된다.

초급 단계의 발음 지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방에 의한 반복적인 연습이다. 이런 모방에 의한 발음연습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음 모델이 되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주어 과외 시간에도 모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억양 발음 지도: 한국어의 억양은 낱말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글월이나 글월의 일부분에 얹혀서 문법적인 기능이나 화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가령 한국말의 “그렇지”의 경우 끝을 높여 발음하면 의문문이 되고, 끝을 낮추어 발음하면 서술문이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억양의 차이로 드러난다.⁹⁾ 반면에 한어(漢語)의 억양은 낱말 안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낱말의 성조를 유지하면서 상승조와 하강조에 의하여 화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낸다.¹⁰⁾ 예를 들면,

“你等車↑?” (상승조)¹¹⁾ --- 차를 기다립니까?

화음”이라 한다.

9) 한연목(1998), 『언어와 사회』, 한신문화사, 70면.

10) 何世達(1985), 『現代漢語』, 北京大學出版社, 43면.

11) 여기에서 상승조도 <你等車?>에서의 <車>에 오고, 하강조도 <你等車>에서의

“我等車↓.” (하강조) --- 차를 기다립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한어(漢語)발음의 영향으로 상승조나 하강조로써¹²⁾ 한국어의 억양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려면 발음 오류 정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말에 대한 화자의 감정 표달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은 한두 차례의 연습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류를 정정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모방 및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발음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극복해야한다.

3. 문법 교수 지도

한국어문법은 중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 중국어 문법은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한국어 문법은 너무 섬세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순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법교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한국어 교과서에서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해 놓은 문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문법 해석은 중점을 잘 틀어쥐고 간결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교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많은 예문을 들어 해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이 말과 글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지 반대로 문법을 배우면서 문법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문법에 빠져 들어 문법 따지기

<車>에 온다.

12) 한어(漢語)의 억양(어조)에는 상승조와 하강조가 있는데 문장에서의 억양의 높낮이는 주로 강세(重音)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의문문은 상승조로 말하고, 평서문은 하강조로 말한다.

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번역은 잘하나 말은 못하고, 문법을 소홀히 하는 학생은 번역이나 글을 쓰라고 하면 오류 발생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말은 잘 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은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체계가 정연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이지 못해서, 별도로 문법시간을 설정하여 문법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만을 따로 교수하면 따분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예문과 오류 분석을 통한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학습에서 형태론적 규칙을 알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문형에 의한 학습과 변형에 의한 학습도 필요하다. 즉, 한국어에 나오는 기본 문형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어휘의 대체, 문장의 확장, 축소, 치환과 같은 단순 변형 연습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시키는 복합 변형 연습을 통하여 문법을 익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특히 한어(漢語)에서의 경어법은 일반적으로 <您>과 <請>, <借光> 등 아주 국한된 몇몇 어휘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어법은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어휘에서도 표현되지만 주로 호칭과 문말어미에 의해 많이 표현된다. 중국학생들로 놓고 말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세분화된 호칭과 경어법을 다 기억하고 익히려면 여간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음이나 어휘 기타 문법 장악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호칭은 억지로라도 기억하도록 하고 경어법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습니다>, <해요> 등만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기타의 것은 그 사용법과 의미만 알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오>, <하라>, <반말> 등은 말의 나쁜 습성을 양성할 우려 때문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되도록 자제해 쓰도록 하고 있다.

4. 어휘 교수 지도

어휘 교수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휘의미의 정확한 이해와 어휘확장 및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깝게 인접해 있고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또한 한국어 속의 60% 이상에 달하는 어휘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어휘학습은 아주 쉬우리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비하면 좀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두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제도, 생활습성 등의 차이와 특히 근 반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의 상호교류 단절로 말미암아 고유어의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한자어의 의미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보통 한국어의 “김치”를 한어(漢語)로 “泡菜” 또는 “腌菜”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어에서의 “泡菜”라는 말은 “양배추나 무 따위를 소금, 술, 후추를 넣고 끓여 식힌 물에 담가서 맛이 시게 절여 먹는 음식”¹³⁾을 가리키고 “腌菜”라는 말은 “채소를 절인다.” 또는 “절인 채소”¹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서 한국어의 “김치”와 의미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국어의 “야심(野心)”이란 말은 순수한 한자어로서 한어(漢語)에서 온 말이다. 한국의 국어대사전을 보면 “야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첫째, 자기분수에 맞지 않게 품은 욕심. 둘째, 남몰래 품은 크나큰 소망, 패기란 뜻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첫째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둘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야심작”, “야심만만한 청년”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대담하게 표현한 작품”, “패기 있는 청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어(漢語)에서의 “야심”은 “영토나 권력, 명예와 이익에 대한 분에 넘치는 욕망”¹⁵⁾이란 뜻으로 한국어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

13) 中國 『現代漢語辭典』(1996), 商務印書館, 954면.

14) 위의 책, 1444면.

15) 위의 책, 1468면.

문에 “그 사람 야심이 많다”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들린다. 이렇게 한국어 어휘는 한어에서 의미가 똑같은 어휘와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유사하거나 같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어휘의미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 한국어에 대응되는 한어(漢語)어휘를 제시하되 두 어휘 사이에 의미 면의 차이점이 있는 가를 확인해 보고 설명을 가해야 한다.

둘째,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어휘의 이해에서 비교적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사, 형용사, 특히 형용사 중에서도 의성·의태어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한어에 비해 부사와 형용사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서 어휘해석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 또는 사전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는 의미 면에서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것들도 많으므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서 쓸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한 가지 언어를 한 채의 건물에 비유한다면 어휘란 그 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 하나의 건축재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잘 장악하려면 우선 어휘량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어휘를 확장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휘 확장을 위해서는 어휘 암기와 더불어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 단문 짓기; 새로운 어휘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짓게 한다. 여기서는 서면이나 구두 형식을 다 취할 수 있다.

㉡ 동의어 찾기, 반의어 찾기 연습; 어휘를 주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찾아내도록 한다.

㉢ 빈칸 채우기; 주어진 문장에 빈칸을 두고 그곳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써넣게 한다.

㉣ 틀린 곳 찾아 고치기; 어휘를 잘못 쓴 글 한 편을 주어 틀린 어휘를 찾아내고 고쳐 쓰게 한다.

㉔ 번역을 통한 어휘 숙달, 한어(漢語)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한다.

사실 구체적인 어휘가 추상적인 어휘보다 쉽게 학습되지만 어떤 어휘를 막론하고 한번 학습된 어휘도 재학습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연습하여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번역(통역포함) 교수 지도

번역은 그 형식에 따라 한어(漢語)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를 한어(漢語)로 번역하는 두 가지가 있다.

번역은 대개 제3학기부터 취급하게 되는데 이 때의 번역내용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둘러싸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번역에 대한 질적 요구도 그리 높지 않다. 번역의 기본 요령을 장악하여 원문의 기본 뜻만 나타내면 된다.

그런데 제5학기부터는 별도로 <번역이론과 실천>이라는 교과과정을 설정하여 각종 문체에 따른 번역을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한편, 학생들이 실천을 통해 그 요령들을 터득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학기부터 번역과를 설치하게 된 원인은 번역은 종합적인 학문이 뒤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한국어를 한어(漢語)로 번역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쉬워서 원문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면 번역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로 한어(漢語)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 가운데 중점은 한어(漢語)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두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번역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 이론은 별로 없고 요령이 대부분이어서 요령 터득을 위해 강의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번역이 잘된 모델 글을 주어 원문과 대조해 보면서 요령이 실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번역이 잘못된 글을 주어 원문과 대조해 보면서 오류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각종 문체에 따른 번역거리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주어 번역해 오도록 한 뒤 오류를 찾아 함께 정정한다.

넷째, 통역은 주로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연습하면서 그 요령을 터득하는데 때로는 전문 부문에서 오랜 통역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기도 한다.

강의 시간에 하는 연습은 주로 두 가지 형식인데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연습할 수도 있고 세 학생을 한 조로 하여 그 중 두 학생이 대화를 담당하고 한 학생이 통역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한다.

번역 교수 지도는 학생들의 종합지식, 특히 학생들의 어휘확장과 문법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크다. 그러므로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롭다.

6. 시청각 교수 지도

시청각에 의한 교수는 언어실습실에서 진행하게 된다. 시청각교수는 일반적으로 제시단계, 설명단계, 반복단계, 전이단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첫째, 제시단계. 주로 연설, 특강을 시청하는 경우엔 그 배경과 내용의 줄거리를 제공하고,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 대담 등을 시청할 경우에는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 대화에 나오는 인물, 대화의 개략적인 줄거리 등을 제공한다.

둘째, 설명단계. 제시단계에 들려 주거나 보여 주었던 내용들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구조의 뜻을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은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듣고 본 뒤 한 단락씩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반복단계. 이 단계의 목적은 학생들이 모국어화자인 한국사람에 못지 않게 시청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반복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나 해당한 녹음과 화면이 재생되고, 본보기로 녹음 테이프가 수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녹음을 듣거나 화면을 보면서 대화의 상황을 머리 속에 연상하면서 반복할 수 있다.

록 해야 한다.

넷째, 전이단계. 학습의 최종 목적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에 알맞는 대화를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제시단계와 반복단계가 끝나면 이미 들려주었거나 보여준 내용을 자기말로 서술하게 하거나 요약하게 한다.

7. 읽기, 말하기, 쓰기 교수지도

① 읽기 교수 지도

영어교수에서는 별도로 정독과정이나 다독과정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읽기를 지도하고 있지만 한국어학과에서는 이런 과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초단계의 본문이나 또는 문학작품독해에서 겸하여 읽기 교수지도를 하고 있다. 읽기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사전에 읽기 내용의 중심사상을 요약하는데 초급단계에서는 한어(漢語)로, 고급단계에서는 한국어로 요약한다.

둘째, 새로운 어휘를 해석한다. 학생들이 주제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읽는 내용물에 대하여 예비 질문을 한다.

셋째, 학생들의 글읽기를 검사하면서 발음상의 오류를 정정한다.

넷째,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집에서 여러 번 읽어 오라고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검사한다.

다섯째, 교사가 모델이 되어 읽는 시범을 보여 준다. 이 방법은 주로 초급단계에 적용된다.

여섯째,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 내용을 한어(漢語)로 다시 진술하도록 하되 고급단계에 가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말하기 교수 지도

외국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말하기를 배우려는 데 있으므로 말하기는 중요하다. 말하기 교수는 초급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단일 문으

로 된 한 마디 한 마디 말에서 점차 복합문으로 된 복잡한 말을 하도록 한다. 한국말은 한어(漢語)와 어순이 틀려 중국사람들이 배우는 데는 애로가 적지 않다. 말하기 교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숙달하게 한다.

첫째, 강의시간에 물음을 제기하여 대답하게 한다. 이런 방법은 초급단계로부터 고급단계에까지 일관되게 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주제를 주어 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그런데 초급단계에서는 언어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 주변에 있는,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간단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초급단계에서는 자기가정에 대하여, 또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중급단계부터는 교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발생한 오류를 기록해 두었다가 정정해 준다.

③ 쓰기 교수 지도

쓰기 과정은 전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이다. 쓰기 교수 지도를 하기 전에 우선 학생들에게 문체에 따른 한국의 서식과 그 언어적 특징들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쓰기를 하되 처음 하는 쓰기 연습인 만큼 쓰기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신청서 작성하기 등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에 기초를 두고 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고급단계에 들어서서는 점차 경제거래와 무역거래에서 오고가는 서신, 조사보고,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도록 한다. 쓰기를 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연습을 진행한다.

첫째, 먼저 모델 문장을 주어 대치, 변형과 같은 문장형성을 연습하게 한다.

둘째, 글을 먼저 한어(漢語)로 작성하게 한 후 그것을 번역하게 한다.

셋째, 긴 글을 주어 내용을 요약해 쓰도록 하거나 어떤 내용의 줄거리를

주어 살을 붙이도록 한다.

쓰기 지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문법과 언어 표현 방식이다. 학생들이 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정정해 주되 오류를 고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오류발생의 원인을 찾아 준다. 그리고 모든 오류를 다 교사 혼자 정정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 오류를 찾고 정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반세기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 한 중 수교와 더불어 많은 대학교들에서 한국어학과를 증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이론의 총화나 외국의 우수한 교육방법을 외면하고 낡은 경험과 방법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설정, 교재의 개발, 교사의 역할, 시청각설비의 효과적인 이용, 참고서적의 개발 및 과외 독물의 선정 등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경제무역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것들을 예로 들어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 교수방법 및 지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것은 그 어떤 방법론적 차원의 이론의 탐구라 하기보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법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해 본 데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은 교육방법과는 별로 큰 연관이 없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상황의 교류적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은 중국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발음과 문법에 중점을 두고 발음에서는 주로 한자어 발음, 발침 발음, 장 단음 발음 및 억양 발음, 문법에서는 주로 한

국어 문법은 중국어 문법에 비해 너무 섬세하고 복잡하며 한어와 전혀 다른 어순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외국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더불어 중국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은 교육법과 교육이론이 논의되어 왔지만 외국어 교육에 알맞은 최상의 교육법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을 잘 종합하여 변화하는 교육목표와 학습자의 학습에 잘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단순한 낡은 경험과 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수용, 개척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박경자(1994), 『언어학교수학』, 박영사.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김미옥(1994), 『한국어학습에서 나타난 오류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동빈(1997), 『영어교육론』, 한신문화사.
박경수(1995), 『외국어 교수법』, 영실출판사.
한영목(1998), 『언어와 사회』, 한신문화사.
何世達(1985), 『現代漢語』, 北京大學校 出版社.
萬藝玲(1997), 「對外漢語詞義教學中的兩個問題」, 『言語教育研究』, 第3期.